

김수자의 '우주적' 사고

September, 2016 | 정성갑 기자

Agenda



김수자의 '우주적' 사고

이민과 망명, 폭력 같은 사회적 쟁점을 탐구하지만 결과물은 한없이 예술적이다. 거칠고 치열한 삶의 현상이 열거처럼 혹은 느껴지는 인도 몸바이의 슬림 가 골목, 꽃처럼 예쁜 색색의 보따리를 두 바퀴 탈것에 쟁여 답답히 끌고 가는 그녀의 모습은 매혹적이기까지 하다. 어둡고 묵직한 단어 대신 '마음의 기하학'이란 추상적 주제를 내진 국립현대미술관에서의 이번 전시는 그녀가 선보인 기존의 어떤 전시보다도 아름답다. 장축의 지름이 19m에 달하는 거대한 타원형 나무 탁자 위에 관람객이 찰흙 덩어리를 구 형태로 만들어 굴릴 수 있도록 한 작품은 소우주 같은 느낌을 준다. 새알처럼 동그란 수백 개의 찰흙은 크고 작은 행성 같다.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전시장 마당에 설치한 '연역적 오브제', '우주의 알'이라 불리는 인도 브라만다의 검은 돌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작품으로 오방색 띠를 두른 타원체가 초록 잔디를 배경으로 곳곳이 서 있다. 바닥에 설치한 넓은 평면 거울은 주변의 사물과 하늘 풍경을 실시간으로 투영한다. 2017년 2월 5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

글 정성갑 기자 | 사진 재준 국립현대미술관